

# 진도군-전주시 '동학 지도자 유골' 다툼

진도 "일본 불법 반출, 연고지 와야" 유골인도 소송  
전주 "23년간 수장고 보관...이제와 달라는 건 억지"

진도군과 전북 전주시가 125년이 지난 동학 지도자 유골을 놓고 법적 다툼에 들어갔다.  
진도군과 진도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21일 "전주시와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를 상대로 유골인도 청구소송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5월21일 전주지방법

원에 제기했던 '유골 현상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이 같은 달 30일 기각된 이후 정식 제기된 본안 소송이다.  
진도군 측은 소장에서 "이 사건의 유골이 진도군 출신이라는 점에 의문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연고자'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면, 원고들(진도측)은 피고들(전주측)에 대해 우선적으로 연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골이 일본으로 불법반출 됐던 1906년 당시 마지막으로 있었던 곳이 진도군이다"며 "불법으로 해외에 반출된 유골은 원래 위치하고 있었던 진도군으로 반환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도군이 소송을 제기한 유골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일본군에 처형된 무명의 농민군 지도자로 추정된다.  
이 유골은 1906년 목포면화시험장 기사였던 일본인 사토 마사지로에 의해 일본 홋카이도대로 반출됐다. 이후 90년이 지난 뒤인 1995년 일본 북해도대학의 표본

창구에서 다시 발견되면서 존재가 알려졌다. 당시 유골 상자에는 '메이지 39년(1906년) 진도에서 효수한 동학당 지도자의 해골, 시할 중 수집'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북해도대학과 협의를 거쳐 이듬해 유골을 국내로 봉환했지만, 신원 확인에 실패하면서 23년 동안 전주역사박물관 수장고에 보관해 왔다.  
이후 전주안장 계획이 전해지자 진도군이 본격적으로 반환 운동에 나섰다. 진도군과 군의회는 유골이 돌아오면 전시관과 역사공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진도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에서 유골 반환을 적극 요청해와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유골에 대한 인도청구가 받아들여지면 DNA 검사를 통해 후손을 찾아 그들의 뜻에 따라 안장 등 기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도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측은 "전주시가 유골을 화장해서 묻으려는 계획을 알게 돼 2015년부터 반환 요청을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진도에 알리지 않고 6월1일 안장식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에는 동학정신을 기리고 참여자와 후

손을 밝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유골이 진도 출신일 가능성이 높고 진도에서 출토돼 도굴된 만큼 연고지로 돌려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주시는 그동안 진도군에 몇 차례 안장 의사를 타진했지만, 군수 부재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답을 주지 않아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와 협의 끝에 전주에 안장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측에서 2001년부터 유골을 수습한 진도를 비롯, 전투장소인 정읍과 김제 등에 안장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이제와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억지다"며 "유골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을 경우 보관·관리하는 자가 연고자가 될 수 있다는 법률적 조언에 따라 전주에 안장했다"고 말했다.  
/강진·박주현 기자

# '홍어장수 문순득' 국제페스티벌 성료

신안 자은도 일대서  
국·내외 해양문화공연

조선 후기 신안군 일대 섬과 아시아 국가들을 왕래하며 홍어를 거래했던 홍어장수 문순득을 기념하기 위한 국제페스티벌이 신안 자은도 분계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됐다.

21일 신안군에 따르면 극단 갯돌과 (사)세계마당아트진흥회 주관으로 최근 열린 페스티벌은 해외공연과 국내공연, 신안문화제, 체험행사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특히 홍어장수 문순득이 거쳐 간 국가인 필리핀,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의 문화예술단체가 한곳에 모여 한여름 축제를 펼쳤다.

오기나와 우라카지 에이사탐의 북춤과 필리핀 북부대학교 무용단의 바탄댄스, 마카오 임치무용단의 창작무용, 말레이시아 팡코르 섬 예술단의 물고기 퍼포먼스 등 해양문화공연이 한여름 밤을 수놓았다.

문순득의 넋을 위로하는 신안씻김굿(무형문화재 제52호 유전자)과 궁중 퍼포먼



신안군은 최근 자은도 분계해수욕장 일원에서 '2019 신안 문순득 국제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신안군 제공

스도 함께 열려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이밖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안좌도 풍물놀이와 팔금도 퓨전난타, 자은도 사물놀이, 입해도 민요, 비금도 물레소리 등

도 신명난 무대도 찬사를 받았다.  
박우량 군수는 "동아시아의 바다는 해양영토로 인한 갈등과 분쟁 등 험난한 풍량이 이는 곳이지만 민간에서의 문화교류

를 통해 상상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 신안 이목마을 '1호 치매안심마을' 지정

치매예방·인지강화교실 등 프로그램 진행

신안군이 팔금면 이목마을을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고 기념식을 개최했다.

21일 신안군에 따르면 최근 이목마을에서 박우량 군수와 김용배 군의장, 박두훈 면장, 유관기관 단체장, 마을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매안심마을 지정, 기념식을 가졌다.

군은 마을 주민들이 치매를 바로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마을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치매예방·인지강화교실 운영 ▲신경인지검사(CERAD-K) ▲치매안심거점 쉼터 운영 ▲치매파트너 양성 등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마을에는 또 이야기가 담긴 벽화를 제작해 치매환자가 오랫동안 기억을 품을 수 있도록 환경 조성도 병행한다.

신안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1만 3,958명, 치매환자는 1,6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 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인구와 치매 환자 인원을 고려해 치매안심마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치매환자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예방프로그램 운영 등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환자 약제비 지원, 방문 보건서비스 등 치매관련 서비스 요구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신안군이 팔금면 이목마을을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고 기념식을 개최했다. /신안군 제공

# 강진 병영소주·사또주 세계적 품질 인정

국제식음료품질인 평가서 '2star' 수상

강진 병영양조장의 대표 주류인 '병영소주' (사진)와 '병영사또주'가 국제식음료품질인(ITQI)이 개최한 '2019 ITQI 국제 식음료 품질평가'에서 '2star'를 수상,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았다.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국제식음료품질원은 전 세계에서 출품된 식음료 제품을 평가인증하는 국제적 품질평가기관이다. 미술

랭 수상 식당의 요리사들과 수석 소믈리에들로 구성된 15개국 125명의 전문가들이 블라인드 테스트를 거쳐 평가한다.

제품의 첫인상, 시각, 후각, 맛, 질감을 기준으로 심사해 1star에서 3star로 분류해 상을 수여한다.

평점 70% 이상 80% 미만은 1star, 평점 80% 이상 90% 미만은 2star, 평점



90% 이상은 3star의 평가를 받게 된다.

병영소주와 사또주는 2star를 수상해 남도 전통주의 품질을 인정받았다.

병영소주는 조선시대 전라병영 장군들이 즐겨마시던 술을 김건식 대한민국 식품명인(제61호)의 노력으로 재탄생시킨

증류식 소주다.  
쌀이 귀하던 시절 보리로 빻았던 옛날 방식 그대로 보리쌀과 순수 빻은 누룩으로 밀술을 만들어 3주 이상 숙성한 뒤 여과와 증류를 통해 빻은 고도주임에도 불구하고, 묵 넘김이 부드럽고 향이 온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병영사또주는 조선시대 전라·제주도 군영을 총괄하던 전라병영절도사가 보리로 소주를 만들어 즐겨 마셨다는 이야기에서 이름 붙여진 술이다. 사또주는 대한민국의 술 품질평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 영농 폐비닐 수거보상금 5천만원 기탁

농협해남군지부, 해남군에 전달

농협 해남군지부(박성범 지부장)는 21일 (사)농촌사랑법국민운동본부가 추진하는 농촌사랑 영농폐비닐 수거 사업 보상비 5,000만원을 해남군에 전달했다.

실적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다.

방치된 영농 폐비닐은 농촌 경관을 해치고 불법 소각으로 산불과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등 환경오염과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해 9,130t의 영농 폐비닐을 수거해 도내 최대 실적을 거뒀다.

/해남=박병태 기자

# 클릭! 고향 소식



## 영암 멘토-멘티 놀이문화체험

영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수련관과 기관랜드에서 '멘토-멘티 놀이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1일 밝혔다.

멘토-멘티 놀이문화체험은 초등학교 과 대학생이 함께 놀이를 하며 정서적 지지와 격려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군 관계자는 "자신의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놀이문화체험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암=최복섭 기자



## 강진새마을회 한마음 하계 수련대회

강진군새마을회는 최근 군 복지타운 다목적실에서 새마을지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마음 하계 수련대회를 개최했다.

한마음하계 수련대회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이해와 정보를 공유하고 읍면 지도자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폐소생술 사전 교육을 시작으로 우수지도자 표창 수여, 대회사 등이 진행됐다. /강진=한태선 기자



## 무안 과수화상병 방지 교육

무안군은 최근 과수화상병 관내유입 방지를 위해 사과·배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소 소장 박사를 초청해 화상병 육안진단 및 안전관리 등 교육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농가는 예방에 심혈을 기울여 화상병 세균이 전파되지 않도록 작업도구·작업복 등을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안=박주현 기자